

만국공용어 혹은 시지포스의 바위:

영어 세계화와 언어 다양성의 사이

양세욱*

【요약】

이 글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울여왔던 시도들의 역사적 성과들과 이러한 시도의 최종 산물인 만국공용어(혹은 유사 만국공용어)의 계보와 사상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만국공용어의 장점은 과대평가를 받아온 반면 언어의 다양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과소평가를 받아왔다는 언어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한다. 아울러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어의 지구적 확산에 대응하여 나머지 언어 공동체들이 취할 수 있는 언어정책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데다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 이중 언어 정책의 효용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구의 언어 생태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언어 죽음’ 때문이다. 언어 죽음으로 초래된 언어 생태계의 급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물론 영어의 지구적 확산이다. 영어에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포함하여 올바른 언어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언어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의 확산은 우선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와 그 비용의 감소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만국공용어의 실현이 가져다줄 미래와 그 편익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국공용어의 계보와 사상에 대한 통시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영어의 지구적 확산과 이에 따른 언어 생태계의 변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다.

【주제어】 만국공용어, 에스페란토, 영어, 언어 다양성, 이중언어

*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 이 논문은 2016년도 인제대학교 교직원연구년제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20160489). 이 논문의 초고는 2018년 7월 13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설립 5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주제: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에서 발표되었다.

I. 머리말

이 글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울여왔던 시도들의 역사적 성과들과 이러한 시도의 최종 산물인 만국공용어(혹은 유사 만국공용어)의 계보와 사상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만국공용어의 장점은 과대평가를 받아온 반면 언어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과소평가를 받아왔다는 언어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한다.¹⁾ 아울러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어의 지구적 확산에 대응하여 나머지 언어 공동체들이 취할 수 있는 언어정책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데다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 이중 언어 정책의 효용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구의 언어 생태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언어 죽음 language death’ 때문이다. 전체 언어의 0.1%를 40%의 인구가 사용하고, 전체 언어의 55%를 0.1%의 인구가 사용하는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이번 세기 동안에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리라는 예측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나머지 언어들도 생존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세 언어인 중국어·영어·스페인어를 제외한 언어들 대부분이 소멸하거나 지역 방언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리라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전망까지 제시된 바 있다.²⁾

1) ‘만국공용어’나 ‘만국공통어’·‘세계어’ 등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로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이런 이상을 실현한 언어는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만국공용어(혹은 유사 만국공용어)의 개념과 성격은 다소간의 모호함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어’나 ‘국제공용어’는 사용 범위가 전자들의 비해 보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합의된 정의가 내려진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들 가운데 ‘만국공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언어 죽음’에 대한 자료와 보다 상세한 서술은 제5장을 참고하라.

언어 죽음으로 초래된 언어 생태계의 급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물론 지난 세기부터 진행된 영어의 지구적 확산이다. 브리튼제도의 한 언어로 출발한 영어는 이미 지구상에 출현했던 언어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용 인구와 지역을 확보한 언어이지만, 앞으로 영어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하리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아직 영어에 공식적인 언어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다양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최근 대만 정부는 2019년부터 영어를 중국어와 함께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호황을 맞고 있는 일본에서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 지난 세기 말 한국 사회에서 격렬하게 진행된 영어 공용화 논쟁도 유사한 여러 사례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논쟁은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 있다.

영어에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를 결정할 지위계획status planning,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결정할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을 포함한 올바른 언어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언어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의 확산은 우선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와 그 비용cost의 감소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만국공용어의 실현이 가져다줄 미래와 그 편익benefit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만국공용어, 혹은 유사 만국공용어의 계보와 사상에 대한 통시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영어의 지구적 확산과 이에 따른 언어 생태계의 변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다.

3) 최근 대만 정부가 발표한 영어 공용화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2018), “대만, 중국어·영어 ‘2개 공용어’ 추진 - 중국 ‘문화 독립’반발,” <https://news.joins.com/article/22922526>. 등의 기사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다시 일고 있는 영어 열풍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2018), “‘사원끼리도 영어로?’ - ‘영어 공용어’ 선언 하는 일본기업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850089&wlog_tag3=naver. 등의 기사를 참고하라.

II. 바벨탑 이후

『구약』에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날리려는 의도로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질투하는 하느님’ 야훼YHWH에 의해 좌절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도다.”⁴⁾ 라고 판단한 야훼는 지상에 내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 도시의 건설을 가로막았다. 그 탑에는 바벨Babel, 즉 ‘혼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유대민족의 이 신화적 역사서에 따르면, 지상에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대해 하늘이 내린 형벌의 결과이다.

세계의 살아있는 언어들에 대한 최신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는 Simons & Charles(2018)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7,097개이다.⁵⁾ 이런 언어의 다양성이 형벌인지 축복인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조치의 실효성은 더 의심스럽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러한 노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필요가 생겨날

4) 「창세기」 11.

5)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가짓수는 가변적이다. 언어와 방언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상호이해도inter-intelligibility를 기준으로 언어와 방언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언어와 방언을 가르는 기준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언어학자 막스 바인라이히Max Weinrich(1894-1969)의 “언어는 군대를 거느린 방언”이라는 말은 이런 통찰을 담고 있다. 이후 언어에 대한 통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Simons & Charles (2018)를 기준으로 하였다.

때 대체로 둘 가운데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다.

우선, 둘 또는 그 이상 언어들의 어휘, 음운, 문법을 뒤섞은 혼합어(混合語, hybrid language)인 피진(pidgin)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어 임시방편의 언어로 사용된다. 피진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통상(通商)을 위한 언어접촉을 통해 형성된 혼합어이므로, 어휘는 제한적이고 문법 체계는 단순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부분의 피진은 대항해시대 이후 형성되었고 영어와 프랑스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 유럽어에 기초하고 있지만, 근대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유럽어와 무관하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피진이 상당수 있었을 터이다.⁶⁾ ‘pidgin’이라는 말이 영어 ‘business’의 중국식 발음에서 비롯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7세기 이후 상해(上海)와 광둥(廣東), 복건(福建)을 비롯한 중국 동남부 연안 지역에서 차와 도자기 무역을 계기로 번성하였던 영어와 중국어의 혼합어는 이러한 피진어들의 전형적인 예이다.⁷⁾

피진은 임시방편의 언어이므로 어떤 언어 공동체의 제1언어(L1) 또는 모국어도 아니다. 또 두 언어집단 사이의 교류가 소원해지거나 사라지면 피진어도 더불어 소멸하고,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거나 지속되면 피진어는 다른 언어(대개는 상위어)로 대체된다.⁸⁾ 이런 피진이 드물게 다음 세대에게 학습되어 특정 언어 공동체의 L1으로 뿌리를 내리면 ‘크리올(creole)’이 된다.⁹⁾ 크리올은 피진의 모국어화 과정을 통해 어휘와 문법이 성숙한 언어로 발전한

6)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교역을 위해 사용되었던 ‘Chinook Jargon’이나 아프리카 중서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Sango’ 등이 그 예이다.

Crystal (2010), p. 344.

7) 피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메시지를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pidgin(비둘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Crystal (2010), p. 344.

8) 베트남에서 사용되었던 피진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가 종료되면서 사라졌고, 피진 영어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사라졌다. Crystal (2010), p. 344.

9) ‘creole’은 포르투갈어 ‘crioulo’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럽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종 집단으로, 다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Crystal (2010), p. 344.

다. 영어를 기초로 형성되었고 현재 10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ok Pisin’,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국경 지방에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혼합되어 형성된 ‘Portuñol’, 포르투갈에 의한 마카오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포르투갈어를 기초로 중국어 어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현재까지 마카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Macanese’가 그 예이다.

둘째, 의사소통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여러 언어들 가운데 한 언어 또는 제3의 언어가 초超언어 또는 초超방언의 공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를 고대 그리스에서 공용어 역할을 했던 언어의 이름을 따라 ‘코이네 Koine’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세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언어의 이름을 따라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ka. 프랑크語’ 또는 사비어Sabir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이네Koine’는 원래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제국에서 공용어 역할을 했던 표준 그리스어의 이름이다. 코이네는 대략 기원전 300년 무렵부터 기원후 300년 무렵까지 지중해는 물론, 소아시아와 중동, 흑해 연안 지역에서까지 널리 사용되었고,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으며, 그리스정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언어를 예배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ka’는 이탈리아어를 기초로 형성된 다양한 언어들 의 피진으로 출발하여 대략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동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언어의 이름이다. ‘코이네’와 ‘링구아 프랑카’는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초언어, 초방언의 공용어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아프리카 언어에 아랍 어휘가 일부 추가된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케냐·우간다·르완다·부룬디·모잠비크 등 동부와 남동부 아프리카의 코이네이고, ‘보통화普通話’는 중국계Sinitic 언어와 비중국계 Non-Sinitic 언어를 아울러 299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링구아 프랑카’이다.¹⁰⁾

근대 이전 여러 문명권에서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들이 공동의 문어를

사용하여 교류를 주고받았다. 이 공동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겪는 구어와는 달리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고유의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사용한 문어로, 라틴어·산스크리트어·고전아랍어·한문漢文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언문일치가 실현된 오늘날과 달리 근대 이전까지 구어와 다른 공동문어를 사용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었

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공동문어는 대부분 해체되었다.¹¹⁾ 경전의 권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소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공동문어는 경전이 없는, 경전을 부정하는 근대라는 시공간과 양립하기 어렵다. ‘국민국가가 지배하는 영토’로서의 근대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언어인 국어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공동문어가 해체되고 각 민족의 구어를 고유의 문자로 기록하는 민족어의 시대, 언문일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¹²⁾

Ⅲ. 에스페란토와 만국공용어라는 사상

언어의 사용은 호모 로켄스Homo loquens(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를 다른 동물들과 구분시켜 주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질일 것이다.¹³⁾ 유전자의

10) 1956년 2월 6일, 국무원國務院에서 발표한 「보통화의 보급에 관한 지시關於推廣普通話的指示」라는 문건은 ‘보통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어 통일

일의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다. 그것은 바로 북경北京의 발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말北方話를 기초 방언으로 하며, 전범적인 현대 백화문白話文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하는 보통화이다.”

11) 예외적으로 ‘Fusha’라고 부르는 고전아랍어는 다양한 구어체 아랍어와 병존하며 교육과 종교의 언어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12) 근대 이전 여러 문명권에서 통용되었던 공동문어에 대한 기술은 양세욱 (200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3) 일부 사회성 동물들에게 언어가 있다는 주장을 종종 듣지만, 동물들에게 언어가

98.75%를 사람과 공유하는 침팬지마저도 언어 능력은 미미하다. 『구약』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신화들에서 언어가 사람이 가지는 힘의 원천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언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신들의 언어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자신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할 때, 언어의 차이가 폭력을 수반하는 일은 세계사에서 드물지 않다. 『구약』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알파벳 ‘shin(영어의 [ʃ])’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שִׁבּוֹלֶת(shibbólet, 영어로는 ‘shibboleth’), ‘식물의 이삭·자루’ 또는 ‘물결’이라는 뜻)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다.¹⁴⁾ 이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된 유사한 사건들의 서막에 불과하다.

근대에 이르러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가 득세하고 민족국가들이 출현하면서 ‘로맨스어 연속체’, ‘슬라브어 연속체’ 등의 방언 연속체dialect continuum로 존재하던 언어 변이형들이 별개의 언어로 또렷이 인식되고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고 19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건국으로 힘을 얻은 뒤 동유럽의 ‘후발 민족주의’ 국가까지 가세한 유럽 전역의 언어민족주의 열풍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불길한 기운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백 년 이래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자 ‘본격적으로 기계화된 역사상 첫 전쟁’¹⁵⁾ 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전쟁은 모든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다. 인간 언어에서만 관찰되는 분절성 discreteness과 변위성displacement에 대해서는 Fromkin & Rodman & Hyams (2013), pp. 16-19 를 참고하라.

14)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 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아,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쉽볼렛!” 하고 발음해보라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내지 못하여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 『구약·사사기』 12, pp. 5-6.

15) 그린, 김한영 역 (2013), p. 253.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전쟁end war’가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다음 세계대전의 불씨로 남았고, 20세기 후반까지도 언어의 차이가 빌미가 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¹⁶⁾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비극들이 언어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터이다. 그러나 근대 민족주의와 언어 정체성이 이들 전쟁을 유발한 핵심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Bahamonde(1892-1975) 체제의 대표적인 구호였던 “하나의 깃발,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Una bandera, una patria, una lengua”는 근대 민족주의와 언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근대 이전까지는 전쟁의 주된 원인이 종교였지만, 근대 이후 형성된 민족국가들은 종교가 아니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의 발흥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가던 19세기 말 인공어이자 국제적인 보조 언어International Auxiliary Languge(IAL)를 보급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만국공용어의 실현은 세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된 근대 이후에야 도모할 수 있는 이상이지만,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 언어에 대한 꿈은 고대 이집트의 26대 왕 프사메티크Psamétique이나 성경의 예언자 제파냐 Zephaniah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유구하다.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의 힐데가르트Hildegard von Bingen(1098-1179) 수녀가 라틴어를 기반으로 고안한 인공언어인 ‘Lingua Ignota미지의 언어’는 문헌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만국공용어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R. 데카르트나 G. W.

16)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정치 세력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언들 사이의 사소한 발음 차이들을 과장하여 선전하였다. 내전의 결과, 구 유고슬라비아는 7개의 새 국가(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가 생겨났고, 한때 ‘세르보·크로아티어’라고 불렸던 언어를 썼던 사람들은 이제 각각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어,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마케도니아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에 독립을 선언한 몬테네그로 공화국도 몬테네그로어를 별개의 언어로 선포했다. 그런, 김한영 역 (2013), p. 31. pp. 296.

라이프니츠, J. A. 코멘스키 등도 보편 언어에 대해 상상하였다. 술라이어 Johann Martin Schleyer(1831-1912)가 만국공용어를 만들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1879년에 만들어 1880년에 발표한 볼라퓌크Volapük는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한 선구적인 인공언어이자 만국공용어이다. 그러나 볼라퓌크는 언어가 난해한 데다 운동 조직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져 곧이어 등장하는 에스페란토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말았다.

폴란드의 안과의사였던 자멘호프Lazarus Ludwig Zamenhof(1859-1917)는 1887년 ‘Dr. Esperanto’(Esperanto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라는 필명으로 *Unua Libro*(첫번째 책)이라고 부르는 책을 출간하여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라고 명명한 인공 언어를 소개하였다. 어느 특정 국가의 언어도 아니면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급하여 언어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에스페란토 개발의 근본 취지였다. 이 언어의 문자는 5개의 모음(a, e, i, o, u)과 23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알파벳을, 어휘는 로망스어와 게르만어를, 문법은 슬라브어를 주로 차용하였다. ‘1문자 1발음’의 원칙에 따라 모든 문자는 하나의 소리를 내고, 묵음도 없으며, 강세는 규칙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놓인다. 또 품사에 따라 어간에 고유의 어미를 붙이고, 시제 역시 동사 어간에 고유의 어미를 붙여 표시한다.¹⁷⁾

이후 1905년 *Unua Libro*의 핵심적인 부분을 *Fundamento de Esperanto*(에스페란토 기초)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였다. 그 해에 자멘호프는 ‘제1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를 조직하였고, 이 대회를 통해 *Fundamento de Esperanto*가 에스페란토 운동에서 강제적 권위를 지닌 유일한 문서임을 확인한 ‘볼로뉴 선언’이 비준되었다.¹⁸⁾ ‘제1차 세계 에스페란

17) 명사는 ‘-o’, 형용사는 ‘-a’, 부사는 ‘-e’, 동사 원형은 -i로 끝난다. 과거형은 동사 어간에 ‘-is’, 현재형은 ‘-as’, 미래형은 ‘-os’를 붙인다. 예컨대, ‘사랑’은 ‘amo’, ‘사랑의’는 ‘ama’, ‘사랑으로’는 ‘ame’이고, ‘사랑하다’는 ‘ami’, ‘사랑했다’는 ‘amis’, ‘사랑할 것이다’는 ‘amos’이다.

18) 북프랑스의 해안 도시인 볼로뉴(Boulogne 또는 Boulogne-sur-Mer)에서 비준된 ‘볼로뉴 선언’은 다섯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에스페란토

토 대회'가 개최되고, 헥토 호들러Hector Hodler(1887-1920)의 주도로 1908년에 국제에스페란토협회가 결성되면서 '에스페란토 운동Esperanto movement 또는 Esperantism'이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보급 운동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국제연맹에서는 에스페란토를 국제어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프랑스 대표자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에스페란토는 동아시아에도 일찍부터 보급되어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보급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에스페란토가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확산과 언어 탄압을 비판하고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조선과 대만, 만주국 등에서 (……) 일본어를 강요하지 않고 식민지 민중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들과 일본의 소통을 위해서는 에스페란토를 사용해야 한다.”¹⁹⁾고 일본어의 급진적 개혁주의자인 사이토 히데카즈는 언급하였다. 에스페란토의 이상에 공감하고 이를 보급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였던 사실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도 에스페란토가 일찍부터 전해졌다. 1906년 에스페란토를 접하고 그 취지에 공감한 고종 황제는 초급 에스페란토를 익혔다. 에스페란토의 국내 보급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이는 김억金億(1896-?)이었다. 1916년 8월 일본 동경東京 유학 중에 에스페란토를 강습하고 이듬해 귀국한 후 제1회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연 김억은 1920년 YMCA에서 공개 강습회를 열면서

운동은 에스페란토를 국제 보조어(IAL)로 지지할 뿐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현존하는 언어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에스페란토 지지자들은 에스페란토가 가장 현실적인 IAL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셋째, 에스페란토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든 어떤 목적으로든 에스페란토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Fundamento de Esperanto'는 에스페란토에 대해 유일하고 영속적인 권위를 갖으며 자멘호프 자신을 포함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수정될 수 없다. 다섯째, 에스페란티스트는 유창한 에스페란토 화자로, 에스페란토 단체 활동은 권장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19) 린스, 최만원 역 (2013), pp. 262-263.

본격적인 에스페란토 보급에 앞장섰고, ‘조선 에스페란토협회’의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폐허』의 창간호에 ‘Mia koro(나의 마음)’이라는 에스페란토 시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1923-24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에스페란토 강좌가 연재되었고, 오산학교와 배재학당 등에서 에스페란토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억의 『에스페란토 독학獨學』(京城: 漢城圖書, 大正12[1922]), 원종린 元鍾麟의 『에스페란토 독습獨習』(京城: 文友堂, 大正14[1924]), 조선에스페란토학회의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서울: 조선에스페란토학회) 등 교과서도 편찬되었다.²⁰⁾ 소설가 홍명희(1888-1968), 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백남규(1884-1970), 한국 나비를 세계 학계에 소개하면서 에스페란토로 논문을 작성한 ‘나비 박사’ 석주명(1908-1950),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에스페란토 원작 작품 『마을의 개척자』를 펴내고 1957년 대구 소재 청구대학에 에스페란토학과를 설치하기도 한 문학가이자 사회학자 홍형의(1911-1968) 등도 에스페란티스토였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동안 에스페란토 보급 운동은 조선어를 탄압하고 일본어를 강요하는 일본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민족주의자와 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에스페란토 보급 운동이 천도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²¹⁾

중국에서의 에스페란토 보급 운동은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는 에스페란토가 오랜 유토피아 사상이자 강유위康有爲(1858-1927)의 『대동서大同書』(1919)에 의해 체계화된 ‘대동大同’이라는 이상과 잘 어울렸던 데다, 일본의 중국 침략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받았다. 무엇보다 근대화의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한자漢字 문제

20)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에스페란토 교과서에 대한 정보는 원종린의 후손이기도 한 동아대 원동욱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21) 한국에서는 1975년 한국에스페란토협회가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9개의 지부, 7개의 지회가 있다. 2017년 서울에서 61개국이 참가한 제102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가 개최되었다. 1994년 제79차 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개최된 두 번째 대회였다.

와 언어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에스페란토에서 찾으려 하였다.

19세기 말엽, 기울어가는 중국의 운명에 위기의식을 느끼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한자를 폐지하고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여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²²⁾ 1892년부터 1911년까지 청말 20년 동안 한자의 대체 문자로 제안된 신문자는 총 28종에 달한다.²³⁾ 한자의 폐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중국어 자체를 폐지하고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에스페란토 Esperanto를 대신 사용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에스페란토를 중국에 보급하는 일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사람은 오치휘吳稚暉(1865-1953)였다.²⁴⁾ 1903년 청 정부의 박해를 피해 홍콩을 거쳐 영국에 도착한 오치휘는 다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1907년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세계사世界社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고 잡지 『신세기新世紀』를 발행하였다. 1910년까지 121호가 발간된 『신세기』를 통해 혁명을 고취하는 한편 한자와 중국어를 폐지하고 ‘만국신어萬國新語’, 즉 에스페란토를 대신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1906년 일본에서 개최된 에스페란토 강습회의 강습생이었던 유사배劉師培(1884-1919) 등은 귀국 후 상해上海와 광주廣州에서 강습회를 개최하고, 1909년에는 상해에서 중국 최초의 에스페란토 단체인 ‘상해 세계어학사上海世界語學社’가 결성하는 한편 잡지 『세계보世界報』를 창간하였다. 중화민국 성립 후, 당시 ‘세계어’라고 불리던 에스페란토는 교육 총장에 취임한 채원배蔡元培(1868-1940)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22) “한자불멸漢字不滅,, 중국필망中國必亡”, 즉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노신魯迅의 선언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 倪海曙 (1958) ; 倪海曙 (1959).

24) 손문孫文이 조직한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핵심 일원으로 활약하였고, 훗날 장 개석蔣介石이 이끈 국민당 정부의 원로로 추앙받았던 오치휘는 일찍이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 ‘두아문자豆芽文字(콩나물 문자)’(1895)라고 명명한 신문자新文字를 개발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한자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16년 북경대학 총장에 취임한 채원배는 1921년에 에스페란토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본에서 추방된 맹인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에로셴코V. Y. Eroshenko(1889-1952)를 교수로 채용하였다. 또 1923-1925년에 오치휘와 함께 ‘북경 세계어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만국신어 보급을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렇게 에스페란토의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면서 에스페란토의 사용 문제는 언어개혁운동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²⁵⁾

20세기 동안 에스페란토는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정부 등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언어공동체로 성장해왔다. 1954년 유엔은 몬테비디오 의결Montevideo Resolution을 통해 국제 보조 언어로서 에스페란토에 공식적인 지지를 보였다. 여러 명의 작가들이 에스페란토 문학의 성장을 위해 기여를 해왔고, 1999년 영국의 윌리엄 올드William Auld가 노벨 문학상에 지명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6년에도 노벨문학상 지명자를 배출하였다. 현재까지 에스페란토는 L1 사용자 약 1,000명, L2 사용자 200-1000만명을 거느린 언어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부를 둔 세계에스페란토협회Universala Esperanto-Asocio에는 62개 가맹국이 있고, 약 120개 나라에 개인 회원이 있으며, 기관지 <La Lanterno Azia>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세계화와 영어의 지구적 확산에 대한 불만으로 새롭게 에스페란티스트가

25) 문학혁명의 기수가 되었던 잡지 『신청년新青年』의 편집을 담당했던 전현동錢玄同도 1918년 「지금부터의 중국 문자 문제今後的中國文字問題」를 써서 중국어와 한자를 폐지하고 에스페란토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어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중국민족이 20세기 문명의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유가와 도교를 타파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하며, 유가의 학설과 도교의 황당한 말들을 기록한 한문을 폐지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문을 폐지한 후에 어떤 문자로 대체해야 하는가? 나는 문법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발음이 정돈되고 가지런하며, 어근이 정교하고 훌륭한 인위적인 문자인 ESPERANTO를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지만, 에스페란토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호응에도 원래 이름이었던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20세기 초기 에스페란토 지지자들이 직면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었다. 에스페란토는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서유럽 국가들의 탄압을 받았다. 노동자 에스페란티스토들의 조직인 〈세계무민족성협회世界無民族性協會. Sennacieca Asocio Tutmonda〉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통합을 위해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고 선언했다가 ‘위험한 공산주의자들’로 낙인찍힌 사건이 대표적이다.

에스페란토와 에스페란토 운동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독일과 소련에서 발생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에스페란토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의 언어라는 이유로 탄압하였다. 10월 혁명 이후 에스페란토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호이해 수단으로 적극 수용하기도 했던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이 대두되면서 에스페란토가 부패한 부르주아 사상의 침투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에스페란티스토들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과 함께 체포되고 유배되었다. 이런 상황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주변 국가들에서도 재현되었다.

그러나 에스페란토가 만국공용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된 영어의 확산이다. “만국공용어는 점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만약 영어가 아니라면 대안은 에스페란토이다.”²⁶⁾ 라는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1932-2016)의 언급은 한동안 두 언어가 만국공용어의 지위를 두고 벌였던 경쟁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26) 린스, 최만원 역 (2013).

IV. 영어와 ‘영어 어족’

20세 후반, 에스페란토처럼 숭고한 목적을 내세운 적이 없는 브리튼제도의 언어가 자멘호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소망했을 언어의 위상을 점차 갖추어가지 시작했다. 바로 영어이다.

“영어는 한마디로 역사상 유례없이 대박을 터뜨린 언어”²⁷⁾이다. 『에스놀로그』 최신판²⁸⁾에 따르면, 영어는 현재 L1을 기준으로 세계 118개 국가에서 378,250,540명이 사용하고 있다. 또 118개국의 공용어로 여섯 개 대륙 어디서든 한 나라 이상이 공용어로 쓰고 있다. L2로 사용하고 있는 743,555,740명까지 포함할 경우 118개 국가에서 총 1,121,806,280명이 영어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영어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언어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출현했던 언어들 가운데 영어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사용자를 확보한 언어는 없었다.

잉글랜드는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앵글로-색슨어를 사용하는 나라였다. 바이킹들이 자주 침입해 잉글랜드 북부에 정착민과 함께 언어적 유산을 남기기도 했다. 1066년 노르만 정복을 계기로 잉글랜드와 영어는 큰 변화를 맞았다. 이후 여러 세기 동안 잉글랜드에선 프랑스어를 쓰는 외국인이 게르만어를 쓰는 국민을 통치했다. 초기 노르만 궁정에서는 영어를 전혀 쓰지 않다가 대략 3세기가 흐른 뒤 영어가 궁정에서 승리하였다. 물론 영어는 이미 프랑스어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앵글로-색슨 민족이 사용하던 변방의 언어로 출발한 영어는 19세기의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와 20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거치는 동안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며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근대화는 현실적으로 서양화이고,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자면 ‘영국화’나

27) 그린, 김한영 역 (2013), p. 371.

28) Simons & Charles (2018).

‘미국화’이기도 하다. 근대화를 추구하는 많은 지역과 집단들이 영국과 미국의 모델을 수용하면서 영어는 세계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특히, 국제 관계 분야와 언론·광고·방송·영화·대중음악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분야, 국제 여행, 국제 안전,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²⁹⁾

Kachru³⁰⁾는 분포와 사용 양상이 다양한 세계 영어의 현황을 세 개의 동심원 모델로 설명한 바 있다. 가장 안쪽의 ‘내부 동심원inner circle’은 영어를 L1으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하고, ‘외부 동심원outer circle’은 영어가 L2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지닌 지역으로 싱가포르·인도·필리핀 등을 포함하며, 가장 바깥쪽의 ‘확장 동심원expanding circle’은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을 인정하고 외국어로 학습하는 지역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한국도 물론 이 ‘확장 동심원’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1947-)는 ‘공동부로서의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Commonwealth Literature Does not Exist.’라는 에세이에서 “언젠가부터 영어는 영어만의 소유물이기를 그쳤다.”고 말했다.³¹⁾ 동심원의 확장에 따라 지금 영어의 L1 화자와 L2 화자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 인도의 영어 사용자 수는 영국의 영어 사용자 수보다 여섯 배나 많으며, 내부 동심원 전체와 비슷하다는 통계도 있다.³²⁾

그렇다면 영어는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학에서는 한 주도 긴 시간이지만, 언어학에서는 한 세기도 짧은 시간”³³⁾ 이므로 언어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일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언어사의 교훈이지만, 몇 가지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영어가 글자 그대로 만국공용어

29) Crystal (2003), pp. 86-122.

30) Kachru (1985), pp. 211-216.

31) Crystal (2003), p. 140.

32) Crystal (2003), p. 141.

33) Crystal (2003), p. 123.

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7,097개 가운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이 소멸하여 ‘박물관 언어’가 되거나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 가령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프랑스어를 L1으로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L2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의 가정은 물론 현실화되기 어려울 터이지만, 뒤의 가정도 예측이 가능한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언어들 가운데 현재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어는 물론이고 사용 인구가 가장 적은 프랑스어조차도 가까운 미래에 영어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할지 의문이다.³⁴⁾

39개국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는 73개국의 공용어인 영어에는 못 미치지만 나머지 경쟁자들인 아랍어(25개국), 스페인어(21개국), 중국어(14개국)에는 월등히 앞선다. 또 나머지 언어들과 달리 프랑스어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6개 대륙 모두에 원어민들이 있는 진정한 세계 언어이다. 프랑스의 옛 식민지들과 벨기에, 스위스 같은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 1970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56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도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세계에서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하고 민감하게 자기 언어를 보호하는 국민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³⁵⁾ 1994년 당시 드골주의적

34) ‘I. 머리말’에서 서술한대로 최근 대만 정부가 2019년부터 영어를 중국어와 함께 공식 언어 official language로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5) 1635년 루이 13세의 재상이었던 리슐리외 추기경이 프랑스 말과 글의 세련미와 품위를 높이기 위해 설립했고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들의 모델이 되었던 아카데미프랑세즈 Académie française는 이런 자부심의 원천이다. 문학사가이자 수필가로 아카데미프랑세즈의 회원인 마르크 퀴마롤리는 1996년 『르피가로』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잘 교육된 프랑스어는 단순한 프랑스인의 말하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상징체계의 문을 열어주는 특별한 상징체계를 소유한 인간 정신이다. (……) 현대의 라틴어[프랑스어]는 그 자체로 인간 교육이다.” 그린, 김한영 역 (2013), p. 322.

보수 정부의 문화부 장관 자크 투봉(Jacques Toubon(1941-))의 이름을 따서 일명 ‘투봉법’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법’은 공교육, 직장, 광고와 상업, 미디어, 과학 관련 회의 및 출판물 등 다섯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대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국어 보호 조치”³⁶⁾를 단행했다. 이 ‘투봉법’이 겨냥하고 있는 언어는 물론 영어이다. 이런 프랑스(또는 프랑스어권 국가들)가 자신의 언어를 버리거나 영어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어가 만국공용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은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의 외적 저항 때문만은 아니다. 영어를 비롯한 어떤 언어도 만국공용어가 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내적 원인이 있다. 바로 언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언어의 분화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언어의 변화를 언어의 쇠퇴나 타락으로 간주하고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었지만, 언어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근대 이후에 등장한 교육과 인쇄술, 대중매체는 이 변화를 멈추지도, 느리게 하지도 못했다. 영어의 사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영어들 New Englishes’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영어의 변이형들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영어 변이형들 사이의 이런 이질성은 발음은 물론 철자법·어휘·문법·의미·화용·담화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영어 변이형의 출현은 ‘내부 동심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발음과 철자법뿐 아니라 어휘·문법·의미·화용·담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언어로 진화하고 있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대표적인 예일 터이다.³⁷⁾

36) 그린, 김한영 역 (2013), p. 407.

37) 노아 웹스터는 ‘colour’를 ‘color’로, ‘travelling’을 ‘traveling’으로, ‘theatre’를 ‘theater’로, ‘cheque’를 ‘check’로 바꾸는 등 철자 개혁으로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를 차별화하려 했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에서 드러나는 어휘의 차이는 ‘lift(영) - elevator(미)’ ‘queue(영) - line(미)’ 같은 단어에 그치지 않는다. ‘bronco(야생마)’, ‘lasso(울가미 밧줄)’ 등 스페인어 차용어, ‘tomahawk(전투용 도끼)’, ‘wigwam(반구형 오두막)’ 등 아메리카 원주민 말에서 유래한 말도 미국 영어에 추가되었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문법도 달라서, 朱躍·朱小超

이런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뿐 아니라 영어의 의도적인 미국화도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이질성을 부추기고 있다.³⁸⁾

미국 영어에서 에보닉스Ebonics의 위상은 특별하다. 1996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의 교육위원회는 학생 대부분의 L1인 ‘에보닉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학습 보조 언어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면서 미국 사회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³⁹⁾ ‘내부 동심원’에서 이질적인 변이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영제국 내에도 아일랜드Irish, 스코틀랜드Scots, 웰스Welsh와 카크니Cockney 영어 등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뉴질랜드 영어, 캐나다 영어, 남아프리카 영어, 캐리비안 영어”⁴⁰⁾ 등도 여러 측면에서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와 이질적인 언어로 분화하고 있다.

‘외부 동심원’에 속하는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들 사이의 이질성은 더욱 크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아우르는 ‘남아시아 영어’, 이전 영국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영어, 카리브해 지역의 영어, 가장 최근에 외부 동심원에 편입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영어 등은 토착어의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령, ‘Singlish’로 불리는 싱가포르 영어는 영어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공용어 들인 말레이어, 타밀어, 중국어의 영향을 여러 영역에 걸쳐 받아들였다. 특히 전체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화교들의 언어인 중국어의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 ‘Singlish’를 순화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지만, ‘Singlish’는 싱가포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

(2015), pp. 18-21.에 따르면, ‘decide’의 경우 영국 영어에서는 사역동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r/ 발음은 영국 영어에서는 낮은 신분을 상징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발음 표지이다.

38) 몬태나주의 하원의원 워싱턴 매코믹은 많은 미국인이 여전히 영국의 정치·문화적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1923년 ‘English’가 아니라 ‘American’을 미합중국의 공용어로 정하자고 발의한 바 있다.

39) 그린, 김한영 역 (2013), pp. 188-193.

40) Crystal (2003), p. 144.

로 자리 잡았다.⁴¹⁾

역사적으로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긴장 관계를 형성시킨 근본적인 동력은 구심력求心力과 원심력遠心力이라는 상반된 힘이다. 중심부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언어가 확산될수록 방언 사이에 더 큰 이질성을 초래하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이와 동시에 표준어의 구심력이 방언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통합과 안정의 시기에는 표준어의 구심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분열의 시기에는 방언 사이의 이질성을 증대시키는 원심력이 보다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영어는 표준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영국 남부 지방의 표준 발음 Received Pronunciation을 의미하는 ‘왕의 영어’(King’s English. 여왕 통치기에는 ‘Queen’s English’)나 ‘캠브리지 영어’, ‘BBC 영어’가 있고,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실질적인 표준 영어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변이체들이 법률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가 없다는 점이 영어의 수용에 따른 거부감을 줄이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언어 분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영어 내부의 불일치가 증가하면서 영어는 점점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에 거느린 ‘어족family of languages’이 되어가고 있다.⁴²⁾

그린은 영어를 마이크로소프트, 그 중에서도 무소부재無所不在한 윈도 운영체계에 영어를 비유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유비로도 영어의 세계적인 위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50년 뒤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때 영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져 있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⁴³⁾ 복거일은 영어야말로 온

41) ‘Singlish’의 언어 특징에 대해서는 朱躍·朱小超 (2015), pp. 21-25. ; pp. 35-41. 를 참고하라.

42) McArthur (1998) ; Crystal (2003).

43) 그린, 김한영 역 (2013), pp. 371-372.

세계에서 온 인류가 쓰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국제어라면서, “이 사실은 영어가 아주 오래 인류의 언어로 남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번 영어가 세계어가 되면, 나머지 언어들 은 활력을 잃을 것이고 대부분은 쇠멸할 것이다.”고 말한다.⁴⁴⁾ 영어의 확산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영어를 포함한 어떤 언어도 내부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 규모로까지 확장되기 어려우리라는 근본적인 가정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세기 영어를 세계 곳곳에 전파한 힘은 바로 미국의 힘이었다. 영어가 그토록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변이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영어 화자들끼리는 단일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미국이라는 구심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지금은 미국의 위세가 정점에 달한 시기이다. 어떤 권력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므로,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위세는 언젠가 줄어들 터이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⁴⁵⁾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다른 나라(예컨대 중국이나 인도, 터키, 러시아 등)가 미국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영어는 급속하게 영어어족의 일원들인 여러 하위 언어들로 분열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동풍뿐(萬事具備, 只缺東風)”이라는 중국 속담을 빗대어, 영어가 영어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로 분화할 준비는 이미 끝났고 부족한 것은 미국 문명의 쇠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의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로마제국과 그 속령에서 주로 중산층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던 통속 라틴어(vulgar Latin. 라틴어로는 ‘sermo vulgaris’)는 고전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44) 복거일 (2003), p. 30.

45) 복거일 (2003), pp. 31-35. 은 ‘영어의 앞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로 ‘미국이 쇠퇴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다양한 근거와 수치를 들어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나머지는 중국어와 스페인어의 위협, 민족국가들의 저항, 영어의 분화, 아주 발달된 자동번역·통역 기계의 출현이다). 그러나 15년 전에 그가 제시한 수치(미국이 차지하는 GDP, 방위비, R&D 등의 세계 비율)들이 이미 크게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주장은 상당 부분 근거를 잃고 있다.

쇠퇴와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들로 분화하면서 7세기 전후에 프랑스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루마니아어 등의 로랑스어들 Romance languages로 분화되었다. 물론 영어가 영어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로 분화되더라도 영어의 영향력, 특히 문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터이다. 이 역시 라틴어의 역사에서 유사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V. 영어 세계화와 언어 다양성의 사이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의 역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고생물학자들은 말한다.⁴⁶⁾ 지금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1820년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시작된 대멸종으로, 비관적인 예측으로는 앞으로 500년, 낙관적 예측으로도 1만년 안에 생물 종의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더욱 우울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멸종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고, 지금 최상위 포식자는 바로 인류라는 사실이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고생물학자들이 ‘인류세 Anthropocene’라고 부르는 이유이다.⁴⁷⁾ 지구 생태계에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어 생태계에는 최초의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7,097개 언어들 사이에는 양극화 현상은 극심하다. 아래 [표-1]에서 제시한대로, 사용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8개의

46) 멸종이 생태계에 빈자리를 몇 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일대 사건이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대멸종은 각각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4억 4천만년 전), 데본기 말(3억 6천만년 전), 페름기 말(2억 5천만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2억년 전), 백악기 말(6,600만년 전)에 발생하였다. 이 다섯 번의 대멸종으로 각각 70-95%에 이르는 전체 생물 종이 사라졌다. 이정모 (2015), p. 262.

47) 이정모 (2015) p. 6. pp. 266-267.

언어(전체 언어의 0.1%)를 쓰는 인구가 전체의 40%를, 사용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93개의 언어(전체 언어의 1.3%)를 쓰는 인구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사용 인구가 1만 명을 밑도는 언어는 총 3,924개(전체 언어의 55%)로, 이 언어들의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다. 전체 언어의 0.1%를 40%의 인구가 사용하고, 전체 언어의 55%를 0.1%의 인구가 사용하는 극심한 양극화 상황이다.

인구 분포	살아있는 언어			사용자 수		
	수	비율	누적	수	비율	누적
100,000,000 to 999,999,999	8	0.1	0.1%	2,736,892,880	40.38033	40.38033%
10,000,000 to 99,999,999	85	1.2	1.3%	2,699,413,660	39.82735	80.20768%
1,000,000 to 9,999,999	308	4.3	5.7%	962,414,866	14.19954	94.40722%
100,000 to 999,999	969	13.7	19.3%	309,471,921	4.56597	98.97319%
10,000 to 99,999	1,803	25.4	44.7%	61,598,950	0.90884	99.88203%
1,000 to 9,999	1,969	27.7	72.5%	7,516,041	0.11089	99.99292%
100 to 999	1,047	14.8	87.2%	466,977	0.00689	99.99981%
10 to 99	316	4.5	91.7%	12,150	0.00018	99.99999%
1 to 9	151	2.1	93.8%	608	0.00001	100.00000%
0	248	3.5	97.3%	0	0.00000	100.00000%
모름	193	2.7	100.0%			
전체	7,097	100.0		6,777,788,053	100.00000	

[표-1] L1 화자의 수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출처: Simons & Charles (2018), “L1 화자의 수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https://www.ethnologue.com/statistics/size>”

이런 언어별 사용자 수의 양극화 속에서 사용자 수가 적은 언어들은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언어가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언어의 생명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Fishman⁴⁸⁾의 ‘세대간 언어 단절

등급Graded Intergenerational Disruption Scal(GIDS)’의 확장판인 Lewis & Simon(2010)의 ‘확장판 세대간 언어 단절 등급Expanded Graded Intergenerational Disruption Scale(EGIDS)’에 따르면, 아래 [표-2]에서 제시한대로 현재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위협Threatened 단계’의 등급인 ‘6b’ 이하로 평가된 언어의 수는 총 2,481개로 전체 언어의 35%에 달한다.⁴⁹⁾

EGIDS	살아있는 언어			사용자 수		
	수	비율	누적	수	비율	누적
0	6	0.1	0.1%	1,960,112,910	28.9197	28.9197%
1	98	1.4	1.5%	2,031,258,307	29.9693	58.8890%
2	73	1.0	2.5%	694,250,460	10.2430	69.1320%
3	165	2.3	4.8%	644,797,140	9.5134	78.6454%
4	238	3.4	8.2%	274,947,282	4.0566	82.7020%
5	1,590	22.4	30.6%	678,229,919	10.0067	92.7087%
6a	2,446	34.5	65.0%	419,782,092	6.1935	98.9022%
6b	1,088	15.3	80.4%	62,740,183	0.9257	99.8278%
7	471	6.6	87.0%	10,509,123	0.1551	99.9829%
8a	265	3.7	90.7%	1,095,651	0.0162	99.9990%
8b	412	5.8	96.5%	64,986	0.0010	100.0000%
9	245	3.5	100.0%	0	0.0000	100.0000%
전체	7,097	100.0		6,777,788,053	100.0000	

[표-2] 생명력 상태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출처: Simons & Charles (2018), “생명력 상태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https://www.ethnologue.com/statistics/status>”

48) Fishman (1991)

49) EGIDS는 ‘International’(0)부터 ‘National’(1), ‘Provincial’(2), ‘Wider Communication’(3), ‘Educational’(4), ‘Developing’(5), ‘Vigorous’(6a), ‘Threatened’(6b), ‘Shifting’(7), ‘Moribund’(8a), ‘Nearly Extinct’(8b), ‘Dormant’(9), ‘Extinct’(10)까지 13단계로 언어의 생명력을 평가한다.

Dalby⁵⁰⁾의 추정치에 따르면, 21세기에만 세계 언어의 절반인 약 2,500개의 언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Crystal⁵¹⁾ 역시 세계 언어 6000개 가운데 최소한 절반이 이번 세기 동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⁵²⁾ 100년 동안 2,500-3000개 언어가 사라진다면 평균 2주에 1개 이상의 언어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북미와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중국 등의 상황이 심각하다. 적어도 300년 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들만 스페인어·중국어·영어뿐이고,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같은 언어들도 그 뒤로는 지역적 방언들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⁵³⁾ 정부의 지원과 국제기구의 노력, 언어학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언어 죽음 Language Death’은 이미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언어 죽음’보다는 ‘언어 홀로코스트’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를 상황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언어 죽음의 원인은 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 특히 근대로 접어들면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로 상징되는 언어민족주의의 득세와 함께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언어를 금지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채찍은 오히려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는 일이 잦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영어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언어 죽음의 원인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바로 경제적 풍요라는 당근으로 대변되는 보다 실용적인 원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권과 넬슨 만델라가 이끈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오랜 협상 끝에 1996년에 탄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 헌법에는 새로 선포한 11개의 공용어를 고루 장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⁵⁴⁾

50) 돌비, 오영나 역 (2008), p. 7.

51) Crystal (2003), p. 20.

52) Dalby과 Crystal이 추정한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Simons & Charles (2018)이 제시한 언어의 수(7,097개)와 차이를 보인다.

53) 이 추산은 북거일 (2003), pp. 50-51. 에 인용되어 있으나, 이 추산이 근거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헌법은 모든 공용어의 평등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이 언어들이 나란히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는 공용어인 아프리카 말들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⁵⁵⁾ 하지만, 아프리카 부모들은 이 같은 언어 교육을 거부한다. 영어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줄 입장권이고, 때로 ‘흑인 경제 육성’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흑인을 위해 마련한 안정된 일자리를 따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영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른 언어들을 압도하였다. 영어 화자들이 영어를 원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한 결과가 아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⁵⁶⁾

지난 세기 말미에 저서와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영어 공용화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킨 복거일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⁵⁷⁾

이 글은 본질적으로 ‘영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economic approach’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접근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런 반응은 모국어에 관한 논의에선 훨씬 거세어진다. 모국어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데, 그것의 가치를 따지는 일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본다. 그런 반응이 우리나라 에서 유독 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 모국어에 관한 한,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 따지고 보면, 모국어를 신성한 것으로 만든 것은 근대 유럽의 민족주의였고, 세계를 정복한 유럽 문명이 수출한 것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민족주의였다.

54) 이 가운데 아홉 개 언어(줄루어, 코사어, 은데벨레어, 츠와나어, 스와지어, 소토어, 벤다어, 쉐카어, 페디어)는 아프리카 말이고, 나머지 둘은 네덜란드인들의 말에서 유래한 아프리칸스Afrikaans와 영어이다.

55) Crystal (2003), p. 282.

56)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어가 거둔 승리에 대해서는 그린, 김한영 역 (2013), pp. 275-277. 을 참고하였다.

57) 복거일 (2003), pp. 10-11.

영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회적 성공을 바랄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세계성(globality)의 시대’에 정보의 교류를 막는 언어 장벽을 낮추어서 그런 장벽으로 인해 우리가 보는 손해를, 비록 눈에 띄이지 않지만 살펴보면 엄청난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가.”⁵⁸⁾를 고민해야 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길뿐이라는 것이 복거일의 주장이다. 또 영어를 ‘상용화’하는 일에 성공한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유럽 등과 LG전자 등 국내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모종린 외(2010)는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복거일의 ‘경제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

체코 출신의 영국 철학자이자 사회인류학자인 어니스트 겔너Ernest André Gellner(1925-1995)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국가 형성의 원인으로 ‘산업화’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⁵⁹⁾ 산업화로 인해 민족주의가 필요해졌다는 겔너의 이론은 환원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와 산업화가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산업혁명의 본고장인 영국은 브리튼 제도 전역에서 영어의 지배를 확립하는 동시에 영국 문화를 미국과 인도 등에까지 전파하였다.⁶⁰⁾

겔너의 ‘산업화’라는 모델은 영어의 지구적 확산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영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 기능은 경제 패권을 실현하는 달러의 기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듯

58) 복거일 (2003), p. 16.

59) 어니스트 겔너는 유럽은 어떻게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내부 제국의 시대에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국가의 시대로 나아갔는지에 대해 ‘산업화’라는 하나의 단어를 축으로 민족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1983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연의 마주하는 최전방에서 자연물들에 인간의 육체적 힘을 직접 가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은, 꼭 ‘사람을 다루는’ 일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버튼이나 스위치 혹은 레버 등 ‘이해’가 필요하면 그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어떤 표준적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의 조작을 수반한다.” 그린, 김한영 역 (2013), p. 244.

60) 그린, 김한영 역 (2013), pp. 243-245.

영어의 확장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세계화’나 ‘경제 효율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원인이 언어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자율을 가장한 강제’에 의한 언어 죽음인 셈이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 그러하듯이 언어의 죽음도 깊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 언어 죽음은 단순한 상실감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크리스탈⁶¹⁾은 우리가 왜 언어의 죽음을 막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언어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언어는 역사의 저장고이기 때문이다 ; 언어는 인류의 지식 총량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언어는 그 자체로 흥미롭기 때문이다”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삶의 어떤 순간도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언어와 생각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언어와 생각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과 주장이 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세계를 인식하는데 언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 에드워드 사피어 Edward Sapir(1884-1936)와 그의 제자 벤자민 워프 Benjamin Lee Whorf(1897-1941)였다. 이러한 주장을 ‘사피어-워프 가설’(또는 ‘워프 가설’)이라고 부른다.⁶²⁾ 사피어-워프 가설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언어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⁶³⁾ 사피어-워프 가설의 좀 더 약한 형태는 언어상대론이라고 불린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61) 크리스탈, 권루시안 역 (2005), pp. 51-106.

62) 워프가 말한 “우리는 우리의 자연 언어가 그려놓은 선에 따라 자연을 분할한다 (We dissect nature along lines laid down by our native language).” 라는 명제는 사피어-워프 가설의 강력과도 같다.

63) 언어결정론은 주류 언어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은 언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훨씬 미묘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 『언어 본능 -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의 저자이기도 한 스티븐 핑커(1954-)는 사람은 모국어가 아니라 ‘생각언어mentalese’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정하지는 않지만, 언어와 생각은 연관성이 있으며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진다.

언어와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언어와 생각의 상대적인 연관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언어의 죽음은 이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

VI. 맺음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1913-1960)가 ‘부조리에 관한 시론’이라는 부제와 함께 발표한 『시지포스 신화*Le mythe de Sisyphe*』(1942)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신들은 시지포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까지 바위 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돌덩이는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그 꼭대기에서 다시 굴러 떨어졌다.⁶⁴⁾

만국공용어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영어를 포함하여 만국공용어의 지위를 넘보는 모든 언어들의 운명은 산꼭대기까지 굴러 올려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지포스의 바위와 같다. 한 때 사용 범위를 한껏 확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그 자체의 무게로 다시 굴러 떨어지고 말 운명이다.

이처럼 실현이 불가능한 만국공용어의 장점은 지나친 평가를 받아왔다. 만국공용어의 사용은 정보와 물류의 유통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기대와 달리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비극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20세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베트남·캄보디아·르완다·부룬디 그리고

64) 카뮈, 김지은 역 (2017), p. 269.

한국을 포함한 인류사의 많은 비극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말의 전쟁은 때로 총의 전쟁을 부르지만, 말의 통일이 총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진전과 함께 만국공용어라는 환상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바로 자동 기계 번역이다. 아직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기계 번역의 질이 언젠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만국공용어의 장점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언어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종의 다양성이 그러하듯,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직결되는 언어의 다양성은 재앙이기보다는 축복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가 더 풍요로우리라는 환상을 근거로 언어가 지닌 다양성을 제거하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 Yehuda (1858-1922. 원래 이름은 Eliezer Yitzhak Perlman)의 주도로 부활되어 유대 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은 히브리어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한 번 소멸된 언어를 되살려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수 백개의 언어를 보존할 방법이 있는가? 모든 언어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언어를 지금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의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소통할 수 없다면 보다 넓고 풍요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는데다, 생물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여러 개인 나라는 하나 혹은 소수의 언어가 지배적인 나라보다 가난한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⁶⁵⁾

가능한 많은 언어를 살리면서도 가난하고 고립된 사람들의 권리를 훼손하

65) 언어의 다양성이 경제적 풍요와 반비례한다는 ‘피쉬맨-풀 가설(Fishman-Pool Hypothesis)’에 대해서는 Pool(1972), Nettle(2000)과 함께 그린, 김한영 역 (2013), pp. 438-441 을 참고하라.

지 않는 타협이 가능할까. 만국공용어의 이점과 언어 다양성의 축복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데다 거의 유일하기까지 한 대안은 개인들이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이중언어체계를 도입하는 일일 터이다.⁶⁶⁾

전통 사회에서 이중언어를 포함한 다중언어의 사용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이기도 했던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는 “나는 신에게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여자들에겐 이탈리아어로, 남자들에겐 프랑스어로, 내 말에게는 독일어로 말한다.”⁶⁷⁾고 말한 바 있다. “신에게 모국어로 말하고, 여자들에게도 모국어로, 남자들에게도 모국어로, 말에게도 모국어로 말하는” 현상은 근대 민족국가와 언어 민족주의의 출현과 함께 일반화되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중언어를 구사하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이 언어습득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⁶⁸⁾

66)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양층언어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다. Ferguson (1964), p. 435 의 양층언어 兩層言語 diglossia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양층언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하층어가 문학 창작이나 종교 의례 등 고상한 용도를 위한 별도의 상층어와 병존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언어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층어는 가정과 거리, 시장의 언어이고 우정과 연대의 언어로 위세가 낮은 반면, 상층어는 주로 정규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공식적인 강연이나 방송, 종교 의례나 글쓰기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위세가 높은 말이다. ‘Schwyzerdütsch’라고 부르는 스위스 독일어와 표준 독일어가 함께 사용되는 스위스, 지역적으로 다양한 구어체 아랍어와 고전 아랍어가 함께 사용되는 아랍권, 아이티 크리올과 표준 프랑스어가 함께 사용되는 아이티, 디모티키 dhimotiki(‘민중의’라는 뜻)와 카타레부사 katharévousa(‘순수한’이라는 뜻)가 함께 사용되는 그리스도 양층언어의 사례이다.

67) 그린, 김한영 역 (2013), p. 240.

68) 추상적인 다양성이나 다문화 이외에도 보다 실용적인 장점도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대체로 높은 지능과 우수한 지적 성과를 보여준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단일 언어 사용자들에 비해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수학 능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 인과관계의 방향을 의심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언어의 사용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Portes & Hao (1998).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창한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경우 노인성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Bilingualism Has Protective Effect in Delaying Onset of Dementia” 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60646.php.

벨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함께 배우고 여기에 제3의 언어(대체로 영어)를 추가한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L1(독일어 사용자가 인구의 약 2/3)이 무엇이든 영어와 함께 공용어인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망슈어Rumantsch 가운데 다른 하나를 배운다. 인도 역시 대체로 삼중언어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지역어와 힌디어로 동시에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은 대체로 영어로 진행된다. 물론 이런 이상적 모델이 인도 전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지역어들과 전국적인 언어인 힌디어, 그리고 영어에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중언어를 포함한 다중언어체계의 도입은 민족주의와 세계화, 보다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와 언어 다양성이 주는 혜택 가운데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받고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불행한 상황을 막아줄 것이다. 물론 다중언어체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터이다.

참고문헌

- 모종린 외 (2010), 『영어 상용화와 국가경쟁력 - 영어공용화 논쟁을 넘어서』, 파주: 나남.
- 문화관광부 (2003),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실태와 문제점』, 서울: 문화관광부.
- 복거일 (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지성사.
- (2003),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양세욱 (2007), 『동아시아 共同文語 시대의 재구성』, 『중국어문학논집』, 46: 151-174.
- 이정모 (2015), 『공생 멸종 진화 - 생명 탄생의 24가지 결정적 장면』, 서울: 나무나무.
- 정시호 (2000), 『21세기의 세계 언어전쟁: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인가』,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조동일 (2001),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망상』, 파주: 나남.
- 그린, 로벌트 (2011), 김한영 역 (2013), 『모든 언어를 꽃피게 하라: 말에 관한 잔소리의 사회사』, 서울: 모멘토.
- 네틀, 다니얼 & 로메인, 수잔 (2000), 김정화 역 (2003),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그 많던 언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 EJB.
- 린스, 올리히 (1988), 최만원 역 (2013), 『위험한 언어: 희망의 언어 에스페란토의 고난의 역사』, 서울: 갈무리.
- 앤드류, 달비 (2002), 오영나 역 (2008), 『언어의 종말』, 파주: 작가정신.
- 카뮈, 알베르 (1942), 김지은 역 (2017), 『이방인 · 시지포스신화』,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크리스탈, 데이비드 (2000), 권루시안 역 (2005), 『언어의 죽음』, 서울: 이론과실천.
- 朱躍 · 朱小超 (2015), 『語言與社會』,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倪海曙 (1958), 『清末文字改革文集』,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 (1959), 『清末漢語拼音運動編年史』,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 游汝杰 · 鄒嘉彥 (2004), 『社會語言學教程』,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Dalby, Andrew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2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by, Andrew (2010),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3r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on, Charles A. (1964), “Diglossia”, in Dell Hymes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pp. 429-439, New York: Harper and Row.
- Fishman, Joshua A. (1991), *Reversing Language Shift: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Assistance to Threatened Languages*, Clevedon(England)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Fromkin, Victoria & Rodman, Robert & Hyams, Nina (2013), *An Introduction to Language*(10th), Wadsworth.
- Kachru, Braj (1985), “Institutionalized Second Language Varieties”, in Sidney Greenbaum (ed.), *The English Language Today*, pp. 211-216, Oxford: Pergamon.
- Lewis, M. Paul & Simons, Gary F. (2010), “Assessing Endangerment: Expanding Fishman's GIDS”, *Revue Roumaine de Linguistique (RRL)*, 2: 103-120.
- Nettle, Daniel (2000), “Linguistic Fragmentation and the Wealth of Nation: The Fishman-Pool Hypothesis Reexamined”,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8: 335-348.
- Pool, J. (1972), “National Development and Language Diversity”, in Jonathan Fishman (ed.), *Advance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vol. 2*, pp. 213-230, The Hague: Mouton.
- Portes, Alejandro & Hao, Lingxin (1998), “E Pluribus Unum: Bilingualism and Loss of Language in the Second Generation”, *Sociology and Education*, 71: 269-294.
- Simons, Gary F. & Charles D. Fennig (2018),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21st) (eds.), SIL International. [Online version: <http://www.ethnologue.com>.]
- 서울신문 (2018) “‘사원끼리도 영어로?’ - ‘영어 공용어’ 선언하는 일본기업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8500089>
 &wlog_tag3=naver. (검색일: 2018.09.28.)
- 중앙일보 (2018), “대만, 중국어·영어 ‘2개 공용어’ 추진 - 중국 ‘문화 독립’반발”
<https://news.joins.com/article/22922526>. (검색일: 2010.08.29.)
- “Bilingualism Has Protective Effect in Delaying Onset of Dementia”

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60646.php. (검색일: 2018.09.28.)

Simons & Charles (2018), “L1 화자의 수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https://www.ethnologue.com/statistics/siz> (검색일: 2018.09.28.)

Simons & Charles (2018), “생명력 상태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
<https://www.ethnologue.com/statistics/status> (검색일: 2018.09.28.)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look at the historical achievements of attempts that people using different languages have been trying towards meeting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the genealogy and thought of the universal language, the final product of these attempts. Based on this, it provided a linguistic basis that the advantages of a universal language that cannot be realized have been overestimated while the advantages of language diversity have been undervalued. This article also take a look at the effectiveness and prospects of a bilingualism language policy, which is the most realistic and almost only alternative among the rest of the language community, in response to the global expansion of English that seems to be realizing the ideal of universal language. The spread of the English language is due to the expansion of communication opportun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cost, but behind it is a vague view of the future and benefits of the universal language. Here is the intention to reflect on the global expansion of English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the language ecosystem based on a common consideration of the genealogy and ideas of the universal language.

【Keywords】 Universal Language, Esperanto, English, Language Diversity, Bilingualism

논문 투고일: 2018. 10. 05

심사 완료일: 2018. 10. 11

게재 확정일: 2018. 10. 11